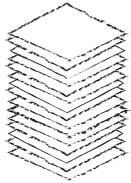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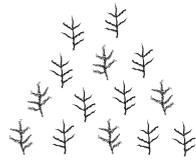


# 종이는

# □ 입니다



990만 t



2억 4천만 그루

우리는 참 다양한 종이를 쓰며 살아갑니다.

우리나라 한 해 종이 소비량은 990만 톤. (2016년 기준)

나무 약 2억 4천만 그루에 해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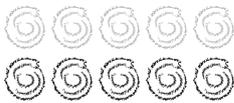
2초마다 사라지는  
원시림의 면적

7140m<sup>2</sup>

종이는 나무가 원료인 천연펄프로 만듭니다.

세계는 종이 생산을 위해 원시림을 계속 베어냅니다.

2초마다 축구장 면적 원시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벌목되는 나무 중  
펄프와 종이로 사용되는 나무

50%

벌목한 나무 50%가 펄프와 종이 생산에 쓰입니다.

캐나다 벌목 90%는 원시림에서 이뤄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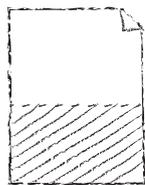
지구의 허파인 인도네시아 원시림 72%, 아마존 원시림 15%

이미 사라졌습니다.

지구의 원시림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각순것이 아름답다

# 종이로 원시림을 지킵니다



고지(폐지) 함량  
40% 이상

재생종이

먼저, 종이 한 장 한 장 소중하게 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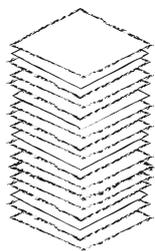
꽤 쓸만한 대안, 재생종이로 바꿉니다.

재생종이는 사용한 종이(사용 후 고지(故紙) 혹은 폐지)를 되살려 만든 종이입니다.

대체로 고지(폐지)가 40% 넘게 들어간 종이를 재생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나무를 새로 베지 않아 환경에 이롭습니다.

고지율이 높을수록 나무를 더 많이 살립니다.



하루 복사지 사용량  
5만 4천 상자



63빌딩  
53개 높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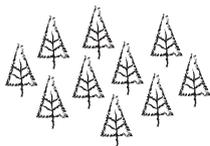
우리가 흔히 쓰는 A4복사지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나라 한 해 복사지 사용량은 2억 9천만 kg입니다.

하루에 복사지 5만 4천 상자,

63빌딩 약 53개 높이 만큼 쓰는 셈입니다.

사무실 복사지 45%가 출력한 날 버려집니다.



10%를 재생복사지로 바꿀  
경우 살릴 수 있는 나무

한 해 27만 그루  
날마다 760그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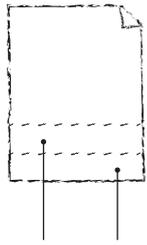
10%만 재생복사지로 바뀌도

해마다 27만 그루,

날마다 760그루 나무를 살릴 수 있습니다.

작은것이 아름답다

# 재생종이, 기후보호종이입니다



에너지, 물 자원  
절약  
15~20%

이산화탄소, 폐기물  
배출량 감소  
15~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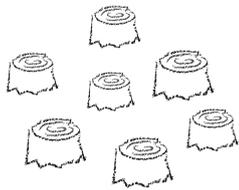
종이 생산에는 여러 자원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재생종이는 숲과 기후를 함께 지켜, '기후보호종이'  
라고도 합니다.

종이와 재생종이(고지 함유율 40%) 만드는 과정을  
비교했습니다.  
재생종이는 에너지, 물 같은 자원을 15~20% 덜 쓰고  
이산화탄소와 폐기물 배출량도 15~16% 더 적습니다.

## 재생종이가 기존 인쇄용지보다 해롭다고요?

2009년 중고등학교 교과서 재생종이 출판을 위한 유해성  
연구 결과, 기존 고급 인쇄용지와 차이가 없었습니다.  
종이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오히려 화학물질을 적게 씁니다.

## 나무농장에서 만든 종이와 재생종이, 어느 종이 환경에 이롭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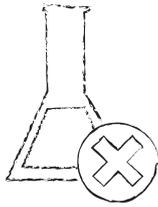
'나무농장(Tree Farm)'은 종이 회사가 원료를 얻으려고  
나무를 심은 '인공조림지'입니다. 원시림을 밀어내고 빨리  
자라는 나무 한 종류만 키웁니다. 다양한 동식물의 삶터를  
빼앗아 만든 '농장'이지 '숲'이 아닙니다. 미국 나무농장은  
남부 숲의 20%를 차지합니다. 이곳 야생 동식물 98%가  
사라졌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수입하는 복사지는  
인도네시아산. 세계 3위 인도네시아 원시림을 베어내고  
만든 나무농장이 늘며 생태계와 지역공동체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작은것이 아름답다

# 10퍼센트만, 재생복사지로 바꾸세요



## 더 하얀 재생복사지는 없나요?



형광증백제

종이 원료인 나무는 하얀색이 아닙니다. 표백하고 형광증백제를 넣어 종이를 더 하얗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백색도'가 높은 종이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형광증백제는 식품용기나 유아용품에 사용을 제한하는 유해 물질로, 재생종이에 쓰지 않습니다. 고지에 들어간 만큼 소량 남아있을 수는 있습니다. 2012년 재생복사지와 일반복사지의 형광증백제 함유량 조사 결과, 재생복사지가 가장 낮았습니다. 일반 복사지에 비해 눈의 피로를 줄여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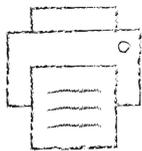
## 재생복사지는 왜 값이 더 비싸나요?



재생복사지 점유율  
2.7%

독일에선 40% 넘는 기업이 사무용지 80% 넘게 재생종이를 씁니다. 우리나라 재생복사지 점유율은 2.7%. 8%가 되면 기존 복사지 수준으로 가격이 낮아집니다. 현재는 일반복사지보다 10% 정도 비쌉니다. 재생종이 생산과 소비가 늘어나면 가격은 낮아집니다.

## 복사기나 프린터기에 걸리는 문제는 없나요?



12개 품질 규정에 적합해 'GR 인증'을 받은 재생복사지가 있습니다. 100매 넘게 연속 복사했을 때 복사 상태가 선명해야 하며 이종급지나 걸림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국내 주요 제지 회사들이 재생복사지를 생산하고, 많은 중소기업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프린터기 노즐을 조절하면 걸림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재생종이, 아래 누리방에서 더 배워보세요  
숲을 살리는 재생종이  
www.green-paper.org | 02-744-9074

만든 곳 작은것이 아름답다 디자인 슬로워크

작은것이 아름답다

GREEN KOREA  
녹색연합